향토 문화

암태도(岩泰島)의 항일 운동

編 輯 者

1922년 8월 암태도(岩泰島) 소작 인들은 일본 지주들의 수탈을 견디 지 못해 「약자의 살길은 단결과 쟁 의」라는 기치 아래 암태 소작인회 (岩泰 小作人會)를 결성하였다.

이 조직은 회장 서태석(徐郃哲), 지도 서창석(徐昌石), 김연태(金淵 泰), 손학진(孫學振), 박응언(朴應 彦), 박종남(朴鍾南), 간부 김정순(金 正順), 김문일(金文一), 김상규(金尚 圭), 박필선(朴弼善), 김문철(金文 喆) 등으로 구성되었다. 압해도 소 작인희는 1922년 추수시부터 부당 한 소작료 불납동맹(不納同盟)을 결 성하기에 이르렀고, 부당한 소작료 를 인하하라고 일본인들이 주축을 이 루고 있던 지주 측에게 요구하였다.

1923년으로 접어들면서 지주 측의 소작료 납부 독촉이 심해졌고, 이 과정에서 소작인회와 지주 측의 충돌이 일어나, 7월 말경에는 소작인들 1천여 명과 지주간의 폭력 사

태가 일어나기도 했다.

이 사건이 일어나자 일경 100여 명과 헌병들은 압해도에 출동하여 군중을 해산시켰으며, 주동자로 12 명을 체포하여 목포 형무소에 수감 시켰다. 이에 소작인들의 흥분은 절 경에 이르렀고, 범선 수십 척을 동 원해서 나누어 탄 후 목포 경찰서를 둘러싸고 하룻밤을 지샌 뒤 다음날 은 재판소로 몰려가 3일 동안 단식 농성했다. 아사 동맹(餓死 同盟)에 당황한 일제는 부윤, 재판장, 서장. 도경찰부 고등 계장 등이 나와서 뒷 수습을 꾀했다. 그 후 대부분의 사 람들이 석방되었지만 서태석만이 1 년 여의 옥고를 치러야 했다. 이 투 쟁으로 인해 소작 조정령(小作調停 令)이 생기고 전국의 소작료 비율이 지주와 소작인 7대 3에서 4대 6으로 바뀌어 6할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농 민들은 다소 나은 삶을 찾게 되었다.